지역 원로·신진 여류작가 '예술 성과 공유'

광주전남여성작가회 41회 정기전 '그리움…그리고 설레임'
22~28일 시립미술관서…강숙자·고정희·최강희 등 30명 출품

고정희 作 '환희'

강숙자 作 '바람부는 날'

추순정 作 '플라스틱의 환상'

지역 여성미술의 기반을 다져온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장 김순정)가 41회 정기전 '그리움…그리고 설레임'을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의 여류 원로작가는 물론 신진작가까지 참여해 예술적 역사와 성과를 한자리에서 조망하고, 세대를 넘는 소통을 통해 성취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광주·전남여성작가회는 1982년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류화가들이 연 창립전을 시작으로 출범을 알린 중견여류작가회다. 남성 위주의 지역 화단에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며 매년 정기전 및 특별전을 선보여왔다.

회원들은 끊임없는 열정과 공동체 정신으로 서양화뿐 아니라 한국화, 조소, 판화 등 장르를 아우르며 지역 화단의 중추적인 역할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시 제목 '그리움…그리고 설레임'은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 설레임 등 넓은 주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 저마다의 해석이 담긴 개성 강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작가로는 강숙자·고정희·최강희 등 원로작가를 비롯해 강은주·고윤숙·국막례·기옥란·김귀덕·김미영·김민·김순정·김영순·민명화·변경섭·이경옥·이신숙·이영범·이영실·이인호·이정주·이종숙·임경옥·정난주·조순현·주미희·추순정·한경희·한남순·함영순·황경숙 등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지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작가 30명이 함께한다.

김순정 광주·전남여성작가회장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작가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수선한 시절이 빠르게 지나가길 기대하며 41번째 정기전을 준비했다"면서 "40여명의 회원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작가들의 예술작품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미적 감각을 풍부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는 광주·전남여성작가들의 영원한 예술적 동경이자 원천일지 모른다. 매혹적인 예술 세계를 향하는 열망을 품고 상이한 여건에도 작가들이 서로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은 "정기전은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예술인들의 기량을 높이고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다.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장식해 심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시가 혹독한 경제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프닝 행사는 개막일 오후 6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제 인형극' 두편 만나볼까
ACC재단 '꽃잠·돈 웨잇 포미' 어린이극장서 24~25일 등

크로아티아와 공동 제작한 인형극 '꽃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선옥)은 5월 춘천에서 열리는 '유니마 총회&춘천세계인형극제'와 손잡고 오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인형극 두 편을 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첫 무대로는 24일과 25일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공동 제작한 작품 '꽃잠'이 공연된다. 전쟁과 난민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어린이의 시선에서 동화적으로 풀어낸 인형극이다.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고 체념증후군을 앓고 있는 주인공 마리는 공포를 피해 스스로 꿈속으로 피신한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안전'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연극적 상상력과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관객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이어 6월 7일과 8일 프랑스 극단의 '돈 웨잇 포 미'(Don't wait for me)가 무대에 오른다.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독창적인 공연을 통해 상상력과 감성 넘치는 세계를 선사한다.

무대 위에서 상상 속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어린이 관객에게 꿈꾸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집을 찾기 위한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관객은 상상 속 세계가 어떻게 현실 무대 위에 구현되는지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꽃잠'과 '돈 웨잇 포미'는 각각 3회 공연되며,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입장료는 각 1만5000원.

김다경 기자 alsqlsdl94@gwangnam.co.kr

무등산 자락 물들이는 '전통문화 대축제'
24~25일 광주문화재단 '무등울림축제' 전통문화관 일대
국악인 고영일·황애리 개막공연…전통체험·푸드트럭 등

국악인 고영열

가야금병창 임재현

따뜻한 봄날을 맞아 무등산 자락이 우리 전통 가락과 흥으로 물든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대표이사 노희용)은 '2025 무등울림축제'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펼친다.

11회를 맞이한 올해 무등울림축제의 주제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광주와 일본 북해도 두 도시의 오랜 교류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신에서 세월이 흘러도 늘 한결같은 산의 모습을, 현대 예술가들이 전통문화를 재해석해 만드는 다채로운 파랑(波浪)에서 바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제목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와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북해도의 예술단체가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예정이다. 북해도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MOU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왔으며, 북해도의 무등울림축제 방문은 2016년 이후 두번째다.

24일 오후 2시부터 너덜마당 야외무대에서는 개막공연 '꽃바람 따라'가 시작을 알린다.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국악인 고영열, 서도민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표현하는 예결 밴드, 국악방송 진행자이자 '우쿨렐레 판소리 장르를 개척한 국악인 황애리가 다채로운 우리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연계행사 토요상설공연으로 문명자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가 '가야금병창 다섯마당' 무대를 꾸민다. 수궁가, 적벽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다섯마당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가야금병창의 매력을 소개한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인 박시양 고수와 김승호 대금연주자가 함께한다.

25일 오전 11시에는 (사)대한무용협회 광주시지회의 '제20회 빛고을 청소년 춤축제'가 펼쳐진다. 한국무용과 발레, 현대무용 등 광주 청소년들의 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는 주제공연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2021년 'MBN 조선 판스타'에서 우승을 거머쥔 국악인 김산옥과 'JTBC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해 '산삼보다 귀한 남자'라는 별명을 얻은 가야금병창 임재현이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폐막무대는 오후 3시 북해도 예술단체 란뵤시가 장식한다. 일본의 전통 북 연주와 타테(연극이나 영화에서 난투하는 장면에 사용되는 동작)를 기초로 한 무용연극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일본 전통 북 체험이 가능하다.

축제기간 중 가족, 연인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사자길들이기 대작전!', 전통 악기의 매력을 느껴보는 '둥둥! 국악놀이터'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도예체험 '물레를 돌려라', 전통주체험 '전통의 풍류를 즐겨보세'를 사전 예약 및 일부 현장접수를 통해 운영한다.

솟을대문 앞에서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져 다양한 민속놀이와 한복체험을 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는 '떡메치기 체험'도 이뤄진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축제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장터 누리랑께를 추진한다. 누리랑께 부스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가능하며, 김치, 장류, 쌀 등 먹거리와 공예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운림동 일대에서는 '스탬프 투어'가 마련된다. 국윤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드영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의재미술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전통문화관까지 행사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4개이상 받으면 미니 손풍기를 선물로 선착순 증정한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670-8511.

김다경 기자 alsqlsdl94@gwangnam.co.kr

'2024 무등울림축제' 행사 모습.

욕망 다스리며 잘 늙기 위한 비법
위홍환 산문집 '노년의 아름다운 삶'

조대여중 교장을 역임했던 위홍환씨가 산문집인 '노년의 아름다운 삶'(문학들 刊)을 최근 출간했다. '무엇이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부제가 달린 이 산문집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만큼 삶을 결산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행복한 노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시대의 숙제인데 이에 대해 다함께 생각하게 만든다.

번잡하고 미세먼지로 가득 찬 도시를 벗어나 바다와 산이 있는 농촌으로 삶의 거처를 옮겼던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에 봉착한 것이 결국 이 산문집의 출간으로 이어진 듯하다.

'대문 밖이 저승이다'라는 말을 상기한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날이 저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부 한낱 쓰레기 더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명성과 권력, 지식 등은 자신이 죽으면 다 부질없다. 따라서 이러한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1부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글의 일부다. 노년에 겪게 되는 심리적 상황과 현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늙어가는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사색하는 그의 고백이 독자의 마음을 울린다.

이어 제2부에서는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운동, 나눔과 사랑, 비움과 채움, 긍정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나눠 살피며 어떻게 노년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살핀다.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는 노년의 삶을 자성하게 만든다. 이치에 맞는 말이라도 줄여야 한다. 어느 모임에든 가 보면 이야기를 독점하는 노인들이 있다. 자랑에 열 올리지 말고 듣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입은 다물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들을 줄 아는 사람,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위홍환씨는 조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학예술'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시집 '동백숲 초록 그늘에 서면'을 펴냈다. 조대부고와 조대여고에서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BTS 진 '돈트 세이 유 러브 미' 공개
내일 미국 NBC 프로그램서 무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20일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타이틀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의 리믹스로 구성된 앨범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다.

이 앨범은 원곡과 인스트루멘털(Instrumental·반주)을 비롯해 밴드, 로파이, 디스코, 신스웨이브, 90년대 팝 버전 등 8곡으로 이뤄졌다.

밴드 버전은 원곡의 편안한 매력에 풍성한 밴드 사운드를 더해 진의 라이브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현장감을 준다. '돈트 세이 유 러브 미'는 사랑이 위로이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복잡한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진은 22일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꾸민다.

연합뉴스